

芝山 曹好益의 哲學思想

申 龜 鉉*

• 目 次 •

머리말

I. 陶山 及門 修學과 哲學에 관한
遺著

II. 遺著의 內容 分析

III. 芝山 哲學의 基本 立場
맺음말

머리말

芝山 曹好益(1545~1611)은 그의 『연보』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남다른 학문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8세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곧 바로 글 뜻을 이해하였고 16세의 약관으로 晉州 夏課에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며 같은 해 가을에는 고향인 창원 鄉試에서 生員 進士 시험과 문과시험에 모두 합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연보』의 기록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한 다음 해인 17세에 퇴계 門下에 入門하여 배움을 청하였다. 이 때 그는 퇴계의 인품에 많은 감화를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퇴계의 인상이 純粹 溫潤하여 모시고 있으면 화기가 사람을 감싸니 아마 程明道도 이와 같았으리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나중에 <퇴계선생행록>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학문적인 강론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었던 기회는 몇 번 밖에 없었고 芝山이 26세 때 퇴계가 서거했기 때문에 학문적인 전수와 지도는 충분히 받지 못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芝山이 그의 타고난 학문적 재능을 보다 더 충분히 발휘하지 못 했던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그가 31세 때 慶尙道 都事 崔滉이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昌原에 와서 芝山에게 그 일을 檢督하는 책임을 맡겼다. 그러나 芝山은 이 때 모친 貞夫人 張氏의 喪禮를 아직 마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지 않았다. 도사가 명령을 어겼다고 노하여 지산에게 장정 50명을 바치도록 독촉하였다. 지산이 자기 집의 모든 일꾼들을 다 바쳐도 수를 채우지 못 하자 도사가 더욱 노하여 지산에게 매를 치는 형벌을 내리고 조정에 상고하여 다음 해에 온 가족을 평안도

*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江東으로 귀양을 보내고 말았다.

이 때문에 芝山은 32세 때부터 48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만 16년 동안 학문 활동이 아주 저조한 서북 변방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불운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영남이나 기호의 명현 석학들과 학문적으로 교류할 기회를 갖지 못한 반면 관서 지방에 학문을 전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안 宣祖 대왕은 그를 귀양 보내도록 주청했던 최항과 臺官, 關西 유생들이 그를 방면하도록 주청하였으나 이를 嘉納하지 않고 손수 '關西夫子'라는 네 글자를 써 주면서 학문의 전수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왜란이 일어나자 義禁府都事에 제수 되어 倡義討賊 하였으며 뒤이어 여러 관직에 제수 되어 봉직하였다. 이와 같이 芝山은 30-40대의 귀양살이로 인한 불운과 50대 이후의 관직생활로 인한 헌신으로 학문에 전념하여 남다른 학문적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는 57세 때 『周易釋解』를 저술한 것을 시작으로 65세에 서거할 때까지 8년간에 여러 저술을 하였다.¹⁾ 이들은 『芝山先生文集』 6권, 『芝山先生文集附錄』 3권, 『家禮考證』, 『心經質疑考誤』 單卷 『易象說』 3권으로 출간되어 오늘에 전한다. 이 문헌들을 통하여 芝山의 陶山 及門 修學, 哲學에 관한 그의 遺著, 遺著의 內容 分析, 그의 哲學의 기본 입장 등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 陶山 及門 修學과 哲學에 관한 遺著

芝山은 16세의 弱冠으로 鄉試 兩科와 文科에 합격한 뒤 17세 때 도산에 가서 퇴계에게 학문을 배우기를 청하여 제자로 입문한 다음 19세 때 퇴계 선생이 어떤 일로 창원에 오신 기회에 선생을 모시고 『大學』에 관하여 質疑하였고 21세 때 仲兄 聚遠堂 光益公과 함께 두 번째로 도산에 가서 퇴계 선생을 배알하고 『朱子語類』와 『近思錄』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22세 때 다시 향시에 합격하였으며 23세에 세 번째로 도산에 가서 퇴계 선생을 배알하였으나 선생이 조정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가시게 되어 며칠 동안만 수업을 한 뒤 퇴계 선생을 모시고 서울로 갔다.

이와 같이 지산이 퇴계 선생에게 직접 지도를 받은 것은 전후 네 차례에 불과하다. 26세 때 퇴계 선생이 서거하였으며 퇴계 선생에 대한 지산의 挽祭文은 逸失되어 전하지 않는다고 『연보』에는 기록되어 있다. 대신 지산이 저술한 <퇴계 선생 행록>은 『지산선생문집』 <잡저>에 수록되어 있으며 전부 8개항으로 된 퇴계 선생의 자품과 학문, 언행과 출처에 관한 기록이다.²⁾

1) 年譜, 『陶山及門諸賢集』,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제3권, 『李朝中期思想叢書』, 서울: 아세문화사 1982(영인본), 598-606쪽 참조.

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陶山及門諸賢錄』에도 지산이 퇴계 문하에서 수학한 과정에 관해서는 그의 『연보』에 있는 위와 같은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이 추가된 것은 하나도 없다.³⁾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師弟나 친구간에는 물론 학자들 간에는 興答書簡으로 학술적인 질의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72통의 서간이 수록되어 있는 『지산선생문집』과 3천여 통이 넘는다⁴⁾ 퇴계의 興答書簡 중에도 그러한 서간은 한 통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이유는 지산이 17세에 입문했을 때 퇴계는 이미 61세의 노령 이었고 관직으로 조정에 나가 있었으며 지산이 입문한 뒤 9년만에 퇴계가 서거하신 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산 자신도 그가 철학적인 문제를 논술한 雜著 속에서 너무 늦게 태어나 퇴계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 못하였고 남명에게는 문하에 입문하지 못 하여 질문을 하지 못 한 것을 아쉬워 했다.⁵⁾

- 선생의 자품은 순수하고 濶濶하여 精金 美玉과 같아서 일찍이 모시고 앉아 있으면 화기가 사람을 감싸니 아마도 明道 선생 역시 어려웠을 것이다.
- 퇴계는 17~18세 때 이미 큰 뜻을 깨닫고 곧 성현이 되기를 기약하여 널리 배우고 힘써 행하여 확충함으로써 만년에 이르러 도를 이루고 덕을 확립하였으므로 혼연하여 그 흔적을 볼 수 없다.
- 퇴계는 거의 성내지 않고 두 번 다시 같은 허물을 범하지 않는 지위에 이르렀다.
- 퇴계는 공부를 하는 곳이 전적으로 네 가지 하지 않는 데(四勿: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있다.
- 퇴계는 정말 [학문에] 능통하면서도 능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알면서도 조금 아는 사람에게 물으며 [아는 것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 하며 꼭 찾으면서도 빈 듯 하고 덤벼도 겨루지 아니 하는 분이다. 근래에 와서 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퇴계가 주자를 배웠다고 칭찬하나 실지로는 顏子를 먼저 배워서 그 자품이 서로 비슷하다.
- 주자가 이미 돌아가신 뒤에 문인들이 각각 자신들이 들은 바를 사방에 전해 주었는데 본 뜻을 많이 잃어 버렸으며 그 유파들은 점점 어긋나서 차츰 이단에 빠져 유학의 正脈이 이미 중국에서도 끊어졌다. 퇴계가 해외에서 수 백년 뒤에 태어나 글을 널리 배워서 예의로 집약하는 두 가지로 나아가고 敬과 義를 함께 지니면서 다른 길로 유혹되지 않고 순수하게 한결 같이 바른 길로 나와서 주자의 도를 정통으로 받아 들였으므로 우리 동방에 그와 비유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중국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한 사람을 볼 수 없으니 실로 주자 이후 한 분뿐이다.
- 퇴계는 초년에 이미 요순과 같은 임금과 신하가 되는 뜻이 있었으나 곧 時世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뜻을 말아서 마음속에만 품었으니 뜻이 약하고 일을 싫어한 분은 아니었다.
- 퇴계는 出處 去就에 한 치도 무심하게 넘기지 않았다. 정미 8월에 굳게 결심하고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 왔다. 이것이 평생 出處의 大節이다. 奇明彦의 지혜는 족히 大賢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사람들이 [퇴계에 관하여] 이렇군 저렇군 하는 시끄럽게 말하는 데 유혹됨이 없지 않았으며 편지로 서로 논쟁하기에 이르렀으니 정말 사람을 아는 일은 쉽지 않다. 또 퇴계는 일찍이 꼭 출세할 뜻이 없었으나 曹南冥은 나아가기를 구한 것으로 의심하였고 또한 일찍이 꼭 숨을 뜻이 없는 데도 李叔獻은 영영 가 버리려 했다고 혐의를 하니 어찌 한탄 서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陶山及門諸賢集』, 『李朝中期思想叢書』, 권3,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영인본), 555쪽.

3) 정범진 편, 『퇴계전서』, 권4,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영인본), 375-76쪽 참조.

4) 권오봉 편, 『退溪書集成』, 제1책, 포항: 포항공대 1997, 7-182쪽 제2책 목차와 428쪽 참조

철학에 관한 지산의 단편적인 遺著는 전부 『芝山先生文集』 총 6권 중 5권과 6권의 잡저에 수록되어 있고 專著로는 『心經質疑考誤』 單卷과 『易象說』 3권, 『大學問答』 단권 등 3종이다. 『芝山先生文集』 제5권은 箋, 序, 記, 跋, 雜著로 분류되어 있고 잡저에는 다시 12편의 철학적 주제에 관한 글과 5편외에 기타 주제에 관한 글들을 합쳐 총 17편의 짧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으며⁶⁾ 제6권에는 잡저만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理氣辨〉, 〈諸書質疑〉로 구분되어 있다. 〈이기변〉은 장편의 논문으로 그 내용을 다시 論理氣, 論材不同, 論壽夭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논술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유고로 전수되었으며 〈諸書質疑〉는 여러 문헌에⁷⁾ 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해명한다. 『心經質疑考誤』는 퇴계의 문인 月川 趙穆과 山天齋 李咸亨이 저술한 『心經質疑』에 오류가 있는 곳을 지적하여 바로 잡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易象說』 혹은 『易象推說』은 『周易』의 난해한 글자와 문장의 뜻을 해설하고 있다. 이 논저 속에는 여러 가지 도설이 삽입되어 있고 그 중에는 지산이 독자적으로 그린 것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⁸⁾ 『大學問答』은 『芝山先生文集』 重刊本에⁹⁾ 서문만 수록되어 있는 반면 이 서문과 문답 내용에 관한 全文은 총 11책으로 증보된 後刊 木板本(간년미상)에 제8책으로 출판되어 있다. 이제 이 논저들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지산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遺著의 內容 分析

지산의 유저를 내용에 따른 주제별로 분류하면 본체론, 修養論, 出處, 徐花潭과

5) 『도산급문제현집』, 권3, 556-557쪽 참조.

6)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적인 주제	기 타
太極論, 論性, 曲禮首章圖, 持敬工夫條目, 題聖學十圖說, 題徐花潭鬼神列生論後, 題南冥曹先生乙卯辭職疏後, 題南冥關西問答辯後, 策問3篇, 射說	退溪先生言行錄, 題東坡集抄後, 秫米辨遊妙香山, 遊香楓山錄

『도산급문제현집』, 권3, 489쪽 참조.

7)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性理大全』, 中庸章圖, 論語章圖, 『朱子大全』, 『四書樂括』, 『理學通錄』.

8) 『도산급문제현집』, 제3권에 수록된 도표는 다음과 같다:

曲禮首章圖 554쪽, 黃道 赤道圖 586쪽, 歷象天氣圖 587쪽, 中庸章圖 588쪽, 論語章圖 590쪽, 心統性情之圖 594쪽, 易象之圖 660쪽, 範數之圖 661쪽.

9)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도산급문제현집』(영인본) 제3권에 수록된 6권 3책의 『芝山先生文集』을 지칭.

曹南溟 批判, 質疑考誤, 解說, 圖解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이 분류에 따라 이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

1. 본체론

본체론에서는 지산이 태극, 음양, 이기, 性情 등의 형이상학적인 본체의 문제를 논술한다.

1) 〈太極論〉에서 지산은 先儒가 이에 관해 자세히 논의하였으나 一元으로 말하는 자도 있고 일년으로 말하는 자도 있으며 일일로 말하는 자도 있다고 한다. 또 하늘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태극으로 나누어 말하는 자도 있으나 그 이치는 한 가지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태극을 설명한 선유들로 莊子, 邵子, 朱子, 眞氏, 明道, 伊川, 張氏, 孟子를 소개하고 정자는 하늘과 사람이 하나이니 다시 하늘에 있고 사람에게 있음을 분별하지 않으며 둘이 있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늘의 태극은 사람의 태극이고 하루의 태극은 곧 一元의 태극이니 오직 夜氣를 함양하고 善幾를 살피서 본체의 眞을 온전하게 하면 태극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 몸에 있으니 어찌 하늘과 사람, 저 사람과 나를 논하는 것이 옳겠는가 라고 한다. 이와 같이 지산은 선유들의 태극에 관한 다원적인 논의를 일원적으로 종합하여 설명한다.¹¹⁾

2) 〈論性〉에서는 무릇 性이란 모두 태어난 뒤를 지칭하는 것이니 天理가 形氣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태어나기 전에는 다만 理라고 할 수 있을 뿐이며 性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張子는 형체가 있는 뒤에 기질의 性이 있고 잘 회복하면 천지의 性이 있으니 性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하였다고 한다. 대개 천

10) 위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글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 제	해 당 하 는 글 들
본체론 (태극, 음양, 이기, 성정)	太極論, 論性, 題聖學十圖說心統性情圖, 策問, 策問, 理氣辨
수양론	曲禮首章圖, 持敬工夫條目, 射說
출처	退溪先生言行錄, 策問
徐花潭과 曹南冥 批判	題徐花潭鬼神死生論後, 題南冥曹先生乙卯辭職疏後, 題南冥關西問答辯後,
質疑 考誤와 問答	諸書質疑, 『心經質疑考誤』, 『大學童子問答』
解說	『易象說』
圖解	曲禮首章圖, 黃道赤道圖, 歷象天氣圖, 中庸章圖, 論語章圖, 心統性情之圖, 易象之圖, 範數之圖

11) 『도산문집현집』, 권3, 552-53 참조.

지의 성은 기질 가운데 있고 기질의 性은 理와 氣를 겹해서 말하는 것이니 천지의 성은 전적으로 理를 지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는 善은 理를 지칭하여 말하는 것이니 성의 本然이라는 것은 이것이고 荀子が 말하는 악과 楊子가 말하는 混과 韓子가 말하는 三品은 전적으로 기를 지칭하여 말하나 기도 역시 淸濁粹駁이 있는데 악만을 말하는 것은 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朱子가 신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고 말한 것은 이를 지칭한 것이다. 『주역』에 이르기를 形而上者를 道라 하고 形而下者를 器라고 하니 天理라고 하는 것은 곧 도를 말하는 것이니 形而上者이고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器를 말하는 것이니 形而下者이다. 道는 器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사물에 접해서 구하면 이것이 그 道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한다.¹²⁾

3) 〈題聖學十圖說心統性情圖〉은 이퇴계가 선조 대왕에게 올린 聖學十圖 중 제6 心統性情圖를 퇴계의 도설 과는 관계없이 지산이 독자적으로 사람은 五行의 기를 부여받아 태어난다는 주자의 이론을 받아들여 해설하면서 水火金木土의 五行과 仁義禮知信을 결합하여 四端說 대신 五端說을 도입한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주자는 사람이 오행의 기를 부여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발하지 아니하면 仁義禮智信의 성을 갖추어 體로 삼고 이미 발하면 惻隱 羞惡 恭敬 是非 誠實의 情이 用이 된다. 대개 木神을 仁이라고 하는데 곧 愛의 理이며 그 發이 惻隱이고 火神을 禮라고 하는데 곧 敬의 理이며 그 發이 恭敬이 되고 金神을 義라고 하는데 곧 宜의 理이며 그 發이 羞惡가 되고 水神을 智라고 하는데 곧 別의 理이며 그 發이 是非가 되며 土神을 信이라고 하는데 곧 實有의 理이며 그 發이 忠信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天理가 본래 그러한 것이며 人心의 奧妙함이다. 이제 林隱의 五端之說은 아마도 이 四端에서 나왔으며 비록 信之端을 말하지 않으나 실지로 네 가지에 端이 되지 아니 함이 없으니 端이 없다고 할 수 없다. 程子의 說은 다만 한 가지로만 發함이 없다는 것을 말 할 뿐이다.¹³⁾

이 설명에서 지산은 四端之說이 仁義禮智만을 말하는 것은 사단이 각각 하나만으로 발하는 것을 지칭하기 때문이며 信은 하나만으로 단독으로 발하지 않고 다른 사단과 함께 발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따로 지칭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힌다.

4) 유교로 남은 세 편의 〈策問〉은 모두 어떤 시험을 위하여 문제를 지시하고 답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첫째와 셋째의 책문은 理氣, 心性, 太極, 陰陽

12) 앞의 책, 553 참조.

13) 같은 곳.

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의 책문은 出處를 주제로 하고 있다. 첫째 책문 내용은 道, 理氣, 心性, 太極 陰陽 등이 그 본체는 모두 하나이나 그것들을 命名 立言하는 뜻은 각각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면 『주역』은 一陰一陽을 도라고 하고 『중용』은 誠을 도라고 하며 性을 맹자는 선이라고 하고 순자는 악이라고 하며 楊雄은 善惡混이라고 하고 韓愈는 三品이라고 하니 동일한 본체에 관해서 이와 같이 상이한 설명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的確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다.¹⁴⁾

셋째 <策問>은 태극이 움직여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이 나뉘어서 남녀가 이루어지고 남녀가 교합하여 氣化가 자라나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물이 생겨나는 것은 음양의 二氣가 아님이 없으나 그 중 사람이 가장 신령하고 식물이 가장 혼미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이유를 상술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⁵⁾

<理氣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완성의 논문으로 論理氣, 論材不同, 論壽夭貴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論理氣에서는 『중용』, 『주역』, 『書』, 『맹자』, 周子, 張子, 程伯子, 程叔子를 인용하여 명제로 정립하고 선유의 견해를 인용하여 보충 설명한다. 예를 들면 『중용』의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天命之謂性이라는 구절의 命은 誥勅이고 性은 職事와 같으며 情은 施設과 같고 心은 사람이라는 주자의 해석을 인용하여 설명한다.¹⁶⁾ 論材不同에서는 “若未爲不善 非材之罪也”, “非天之降材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 然也”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여기에 대한 주자, 眞氏, 饒氏의 해설을 인용하여 附註하고 또 “性卽理也 理卽堯舜至於塗人一也 材稟於氣 氣有清濁 稟其清者 爲賢 稟其濁者 爲愚 學而知之 則氣無清濁 皆可至於善 而復性之本”이라는 전자의 말을 인용하고 이에 대한 주자, 北溪 陳氏의 설명을 附註한 다음 지산은 “맹자가 말하는 材는 性善으로부터 곧 바로 내려오는 것인 반면 정자가 말하는 材는 氣質로부터 뒤섞여 나오는 것이니 정이 사단과 칠정을 갖는 것과 같다. 비록 지칭하는 바가 같지 않으나 실지로는 다르지 않다”¹⁷⁾라고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고 있다. 論壽夭貴賤은 이 문제에 관한 정자의 긴 설명을 인용하고 “선비가 학문을 하는데 명을 아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으며 명이라는 것은 理로써 말하면 仁義禮智이고 氣로써 말하면 清濁粹駁인데 그 고저와 장단에 즈음하여 壽夭貴賤은 역시 이로 인해 정해지고 별도로 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가 한 번 정해지면 한 치도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학자는 반드시 이를 분명히 안 연후에 학문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死生 榮辱에서부터 틀 끝만 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을

14) 앞의 책, 558쪽 참조

15) 같은 책, 559쪽 참조.

16) 같은 책, 570-578쪽 참조.

17) 같은 책, 587-579쪽 참조.

움직이면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氣質之性을 논하면서 그 아래 이 설명을 부쳐서 학자로 하여금 뜻을 정하도록 한다”고 지산은 자신의 설명을 덧붙인다.¹⁸⁾

2. 修養論

지산의 수양논은 〈曲禮首章圖〉, 〈持敬條目〉, 〈射說〉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曲禮首章圖〉는 『禮記』 〈曲禮〉 편 첫 머리에 나오는 無不敬 儼若思 安靜辭 安民哉라는 구절을 도표로¹⁹⁾ 작성한 것이며 〈지경조목〉은 四勿을²⁰⁾ 操存之要로, 九容을²¹⁾ 存養省察 工夫로, 延平의 詩 “붓으로 허공을 그려도 허공은 물들지 않고 칼로 물을 잘라도 물은 흔적이 없다. 인심은 허공이나 물처럼 고요함을 필요로 하나 사물과 함께 자연히 원망도 은혜도 없다”²²⁾는 시를 待物之要로 삼고 있다. 〈射說〉에서 지산은 공자가 “활을 쏘는 것은 군자와 같다. 정곡을 맞추지 못 하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身”라고 한 말을 인용하고 “이제 경험을 해보니 역시 그렇다. 비록 무지한 군인이나 교만하고 간사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활을 쏘서 목표를 맞추지 못 하면 내가 잘 못 쏘았다고 한다. …… 投壺도 그렇다. 고금에 이 일 한 가지만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18) 같은 책, 579-581쪽 참조.

19) 도표는 다음과 같다: 앞의 책, 553-554쪽 참조.

곡 예 수 장 도	
<p>右修己治人之大要</p> <p>省察 動時工夫 敬之行乎外</p> <p>兼內外 安靜辭 易之修辭</p> <p>無不敬 安民哉</p>	<p>存養 靜時工夫 敬之存乎內</p> <p>包心身 儼若思 易之存誠</p> <p>安民哉</p> <p>安民哉 有上三者以臨民有不安者乎○此指其效也</p> <p>安靜辭 容貌必端嚴而若思○此涵養時敬也 言辭必安定而不遽○此省察時敬也 但兩節俱指氣像而言也</p> <p>儼若思 涵養省察而言也</p> <p>毋不敬 身心內外無一毫之不敬也○此總論</p>

20)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같은 곳 참조

21)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用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같은 책, 553-554) 참조.

22) 以筆描空空不染 以刀斷水水無痕 人心要靜如空水 與物自然無怨恩.. 같은 책 554쪽.

성인이 이것을 취했다. 아! 어떻게 인정과 世道가 오래도록 활을 쏘는 것과 같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중용』을 읽다가 이 말에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쓴다고 밝힌다. 이와 같이 지산은 모든 실수나 과오의 원인을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서 찾지 않는 것을 수양의 중요한 규범으로 삼는다.²³⁾

3. 出處

〈퇴계선생언행록〉에서 지산은 퇴계가 出處 去就에 한 치도 무심하게 넘기지 않았으며 정미 8월에 굳게 결심하고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 왔는데 이것이 평생 出處의 大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奇明彦의 지혜는 족히 大賢을 알 수 있었으면 서도 사람들이 [퇴계에 관하여] 이렇군 저렇군 하면서 시끄럽게 말하는 데 유혹됨이 없지 않아 편지로 서로 논쟁하기에 이르렀으니 정말 사람을 아는 일은 쉽지 않으며 또 퇴계는 일찍이 꼭 출세할 뜻이 없었으나 曹南冥은 퇴계가 나아가기를 구한 것으로 의심하였고 또한 일찍이 꼭 숨을 뜻이 없는 데도 李叔獻은 영영 가 버리려 했다고 혐의를 하니 어찌 한탄 서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²⁴⁾

그리고 잡저에 있는 두 번째 〈책문〉은 한 번 벼슬에 나가고 한 번 집에 있는 것은 군자의 大節인데 마땅히 벼슬에 나가야 할 때 집에 머무르면 선을 함께 하고 자기 뜻을 즐겨 실행하는 의리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집에 머물러야 할 때 벼슬에 나가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벼슬에 나아가기를 모험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니 그 동기를 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옛 사람들로 논하면 堯舜 때에는 巢父 許由, 周武王 때에는 伯夷 叔齊, 宋太祖 때에는 王素, 宋眞宗 때에는 林和靖이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이들은 마땅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 머물러 있어서 이른 바 세상을 떠나서 자신만이 선한 의리를 얻은 것인지를 묻고 그렇다면 어떤 세상과 어떤 임금을 만나야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²⁵⁾

4. 徐花潭과 曹南冥에 관한 비판

〈題徐花潭鬼神死生論後〉에서 지산은 화담의 주기설을 비판한다. 그는 “氣의 맑고 한 결 같으며 깨끗하고 허한 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 이것은 理氣의 지극히 오묘함이다. 비록 한 조각의 香燭의 기라도 눈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나머지의 기는 끝까지 흩어지지 않으니 어찌 다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²⁶⁾라는 화담의 말을 인용하고 이러한 화담의 설명은 張橫渠의 “형체가 있는

23) 같은 책, 557쪽 참조.

24) 같은 책, 555쪽 참조.

25) 같은 책, 559쪽 참조.

것이 모여서 사물이 되고 사물이 무너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²⁷⁾는 이론에서 유래하는 것이나 정자와 주자가 이미 그 이론이 타당치 않음을 밝혔으며 이들의 비판을 근거로 해서 보면 화담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으며 향축의 설명에 이르러서는 더욱 의혹 서러운 바가 있다고 하면서 만약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혼백이 이미 흩어지고 뼈가 썩으면 비록 태우지 않더라도 어떤 흩어지지 않는 氣魄이 있겠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화담의 문하에 從遊하여 질문을 하지 못 한 것이 한스럽다고 한 다.²⁸⁾

南冥에 관한 지산의 비판은 〈題南冥曹先生乙卯辭職疏後〉와 〈題南冥關西問答辨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명의 〈乙卯辭職疏〉는 明宗이 1955(을묘)년 남명에게 丹城縣監을 제수 하자 이를 辭職하면서 올린 소인데 이 속에서 남명이 “佛氏가 말하는 眞定이라는 것은 다만 이 마음을 보존하는 것뿐이며 위로 天理를 통달하면 儒敎와 佛敎가 같다²⁹⁾고 명종에게 進言한데 대하여 지산은 정자가 석씨는 오직 上達에만 힘쓰고 下學은 없으니 그렇다면 그 상달처 라는 것이 어찌 있겠으며 불교에도 하나의 覺의 이치가 있으니 敬으로써 내면을 끈게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의로써 외면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없으니 요약하면 그 근본이 역시 옳지 않다고 한 비판과 佛學은 형이상자에는 깨달음이 있으나 治世는 할 수 없다는 주자의 비판을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볼 때 화담이 말한 위로 天理를 통달하면 유교와 불교가 같은 것이라고 한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釋氏가 비록 상달의 공이 있다고 하나 다만 싸늘하고 깨끗하여 티끌 하나 붙지 않아 거울과 같은 것만을 보고 거울과 같다고 하면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 없고 물과 같다고 하면 차와 밥이 본성을 잃어버릴 것이니 어찌 우리 유가의 맑고 허명한 가운데 萬理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움직이면 반드시 절도에 맞는 것과 같겠는가 라고 논변한다.³⁰⁾

〈題南冥關西問答後〉는 晦齋가 關西의 강계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獨子 潛溪 李全仁과 유가 『경전』 뿐만 아니라 辭章之學과 『노자』 등에 관하여 문답한 내용을 잠계가 『關西問答』이라는 제목으로 편집한 것에 관해서 南冥이 〈解關西問答〉³¹⁾을 써서 비판 한데 대하여 芝山이 다시 비판한 것이다.

『關西問答』에 관해 남명은 첫째 復古³²⁾가 성현의 도를 배웠으나 致知가 불명

26) 氣之淡一清虛者 既無其始 又無其終 此理氣極妙底 雖一片香燭之氣 見其有散於目前 其餘氣 終亦不散 烏得謂之盡於無耶. 『도산답문제현집』, 제3권, 555쪽.

27) 有形聚爲物 物潰返原. 같은 곳.

28) 같은 책, 555-556쪽 참조.

29) 앞의 책, 556쪽.

30) 앞의 책, 556쪽 참조.

31) 『陶山及門諸賢集』, 제1권, 61-63쪽 참조.

32) 회재의 字.

하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회재가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 이미 大尹과 小尹 간의 다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재는 그것을 몰라서 직위가 낮을 때 일찍이 사직하지 않고 중책을 맡았다가 후일에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³³⁾

이에 대해 지산은 종종 말년에 이미 이런 조짐이 있었으나 머지 않아 종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곧 貳公의³⁴⁾ 명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회재)의 진퇴가 어려웠다. 이것은 병이 없는 사람이 남의 아픔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지산은 회재를 변호한다.³⁵⁾

남명의 두 번째 비판은 회재가 『대학』이 存養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全仁의 오기일 것이라고 한다. 『대학』의 明明德 止至善은 책 첫 머리에 나오는 첫째의 존양하는 곳이라는 것은 초학자들도 아는 것인데 하물며 회재가 모르겠는가 라고 한다.³⁶⁾

이에 대해 지산은 『대학』에 存養說이 없다고 하는 것은 회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선유도 그렇게 말한 자가 있으며 『대학』에는 성찰상의 공부가 많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戒愼不睹 恐懼不聞은 일찍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³⁷⁾

세 번째 비판은 잠계가 회재에게 과부는 굶어 죽어도 再嫁를 하지 않는다는 정자의 논의에 관해서 묻자 회재는 본인이 원하면 해도 좋다고 답한 데³⁸⁾ 대해 이것 역시 회재의 말을 잠계가 잘 못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³⁹⁾

이에 대해 정자는 다만 부인의 절개를 논했을 뿐 부인으로 하여금 개가를 하지 못 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三父의 설은 이미 『禮記』 중에 실려 있으니 회재를 꼭 나무랄 필요가 없다고 지산은 회재를 변호한다.⁴⁰⁾

네 번째 비판은 회재가 잠계에게 耳目口鼻之欲은 私欲인가⁴¹⁾ 라고 묻은 데 대해 耳目口鼻를 사욕이라고 한 것은 잘 못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耳目口鼻의 欲을 私欲 운운한 것은 회재도 역시 不善한 것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지산은 말하고 이 설은 『中庸』 輯註中에 있으며 초학자들도 알 수 있는데 선생이 모르겠는가 라고 하고 남명과 회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33) 앞의 책, 제1권, 62쪽 참조

34) 인종 1년(1545)에 의정부 右贊成에 임명됨.

35) 앞의 책, 제3권, 556쪽 참조.

36) 같은 책, 제1권, 62쪽 참조..

37) 앞의 책, 제3권, 556쪽 참조.

38) 李全仁 편, 『關西問答』, 『大學章句補遺, 求仁錄, 關西問答』 合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3, 122쪽 참조.

39) 앞의 책, 제1권, 62쪽 참조.

40) 앞의 책, 제3권, 556쪽 참조

41) 『關西問答』, 123쪽 참조.

설명한다:

남명은 일찍이 선생을 기뻐하고 배척한 것이 많았으나 선생은 듣지 못 한 것 같 이 하였으니 이를 일러 덤벼도 겨루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은 일찍이 忘機堂⁴²⁾이 이단으로 돌아간다고 배척하였으나 남명의 학문이 망기당의 학문과 같 다. 退之⁴³⁾는 맹자가 楊朱와 墨翟을 물리친 공이 禹 임금 보다 못 하지 않다고 하 였으나 나는 선생의 공이 역시 맹자 보다 못 하지 않다고 말한다. 동방 理學이 비 록 圃隱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저술이 전하지 않아 후학이 상고해서 알 수 있는 길 이 없다. 寒暄, 一蠹, 靜庵은 비록 그 덕행과 사업이 저렇게 성대하지만 도학은 전 함이 없다. 퇴계가 선생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나 서로 상종한 흔적이 없으니 선 생의 학문은 아마도 마음에 자득하여 우리 동방에 처음 있는 대현이 되었다. 저같 은 구구한 뜬 비탄의 말이 어찌 선생의 大道에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선생은 『대학』 '物有本末 …' 1절을 '格物致知章'의 첫 머리에 옮긴 것은 매우 적 절하며 소견이 아주 높아서 前賢이 이르지 못 한 곳에 이르렀다. 다만 격물 치지는 『대학』이 사람을 가르치는 최초의 地頭이고 그 공부를 논하는 곳은 誠意, 正心, 修 身章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 하면 안된다. 이 절의 위 두 句는 事物의 본말과 종시가 있음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그 아래의 '知所先後'라는 네 글자가 바야흐로 공 부를 말하며 '知止'의 한 절은 전적으로 '物格 知至' 이후의 일을 말하니 공부를 논 하는 곳이 너무 간략하므로 또 缺文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늦게 태어나서 질문을 하지 못 한 것이 한스럽다.⁴⁴⁾

5. 質疑, 考誤, 問答

〈質疑〉는 〈諸書質疑〉, 考誤는 『心經質疑考誤』, 問答은 『大學童子問答』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諸書質疑〉는 여러 서적을 읽으면서 의문점을 발췌 기록하고 그 뜻을 풀이 하 거나 출처를 밝혀 관련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 은 지산이 『性理大全』, 『朱子大全』, 퇴계의 『理學通錄』과 같은 여러 권으로 된 책 들을 광범하고 깊이 있게 읽었다는 사실이다. 『性理大全』에서 그가 의문점을 발췌 한 부분은 太極圖, 『通書』, 『西銘』, 『正蒙』, 『易學啓蒙』, 天地, 日月, 星辰, 五行, 四時, 鬼神, 人物之性, 氣質之性, 心, 理, 仁 등과 같이 거의 전편에 관하여 질의 를 하였으며 『朱子大全』과 『理學通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외에도 〈中 庸章圖〉, 〈論語章圖〉, 〈四書樂括〉에 관한 質疑 역시 지산의 학구적 노력이 얼마나 깊고 치밀했는가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心經質疑考誤』는 退溪의 門人 艮齋와 山天齋이 저술한 『心經質疑』의 잘 못 된 곳을 바로 잡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사람은 퇴계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42) 회재와 무극 태극에 관하여 논쟁을 한 曹漢輔의 호.

43) 韓愈의 號.

44) 『도산급문제현집』, 제3권, 557쪽

퇴계에게 『心經』에 관하여 質疑하고⁴⁵⁾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여 『心經質疑』를 저술하였으나 간행되지 않았다. 지산은 이 책에 많은 오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心經質疑考誤』를 저술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 서두에 “이 책을 살펴보니 선생[퇴계] 자신이 저술한 것이 아니고 학자[간재]가 선생에게 질의하고 물러와서 선생이 대답한 말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 그 진의를 많이 놓쳐 버리고 또한 간혹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오류를 끼치기 때문에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틀린 곳을 대략 바로 잡는다”⁴⁶⁾고 지산은 밝히면서 145곳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肅宗 때에 이르러 宋時烈이 왕명에 의하여 艮齋의 『心經質疑』를 교정 간행하자 숙종 15년에 檢討官 金邦杰이 숙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새로 간행한 <<심경석의(心經釋疑)>>는 본래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인 이덕홍(李德弘)·이함형(李咸亨)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덕홍은 식견(識見)이 고루하여 그 논설이 스승의 훈계를 등진 것이 많고, 이함형이 기록한 것은 아직 정정(訂定)하지 않았습니다. 선사(先師)가 돌아가신 뒤 이황(李滉) 후손의 집과 서원(書院)에는 모두 이 책이 없었습니다. 한 책이 이덕홍의 집에 보관되어 왔을 뿐인데, 그의 외손(外孫) 김만효(金萬倬)가 패려스런 성행(性行) 때문에 향곡(鄉曲)에서 버림을 받고 있던 중 드디어 이 책을 이황이 정정(訂定)한 것이라고 하면서 송시열(宋時烈)에게 바쳤고, 마침내는 천청(天聽)에까지 아뢰어져 중외(中外)에 간포(刊布)되었는가 하면, 김만효를 나이 많고 학문이 깊다하여 재랑(齋郎)에 천거하였으니, 성명(聖明)을 속이고 선현을 속인 것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문자(文字)를 다시 열람하시어서는 안됩니다.⁴⁷⁾

이와 같이 『心經質疑』의 출간과 유포에 관해서 이론이 분분하자 승정원에서는 그 책을 회수하여 불태우기로 하였다. 그러자 숙종 20년에 승지 서문유(徐文裕)가 불태우는 것은 매우 불가하므로 도로 반포함이 마땅하다고 上奏하자 숙종은 동의하였다. 뒤이어 同知經筵事 이여(李翕)가 당음과 같이 아뢰었다:

<<심경석의>>는 본래 이황(李滉)의 문인 이덕홍(李德弘)과 李咸亨 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이 이황에게 나아가 문난(問難)했던 바를 각자가 기록했다가 합쳐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당초에는 <<심경질의(心經質疑)>>라고 했고, 이어 각기 기록한 것을 가지고 이황에게 나아가 바로 잡았는데 그때 왕복(往復)한 말들이 이황의 문집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옥당(玉堂)에도 등본(謄本)이 있었는데, 신

45) 같은 책, 328쪽 참조.

46) 같은 책, 642쪽 참조.

47) 서울시스템주식회사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편, 『(국역) 조선왕조실록(compact disc)』, 증보판, 제3집, 서울: 1997, 숙종 15년, 3월 9일(병오) 조, 『원집』, 제39집, 168면.

유년에 유신(儒臣)의 상소로 인하여 송시열(宋時烈)로 하여금 잘못된 데를 교감(校勘)하게 하였습니다. 송시열이 이에 영천 서원(榮川書院) 및 이덕홍의 외손의 집에서 별본(別本)을 구했는데, 옥당에 있는 등본과 다른 곳이 없었습니다. 송시열이 성상의 명에 따라 번거로운 것은 삭제하고 소략한 곳은 보충하면서도 원본(原本)의 글자 하나도 변동하지 않아, 선배(先輩)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영남(嶺南) 사람 김성유(金聲裕) 등이 상소하여 ‘《심경질의》는 본래 이황의 증정(證訂)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고 하고, 또한 삭제하고 보충하고 한 것을 죄로 삼으므로, 조정의 의논이 그렇게 여겨 드디어 각판(刻板)을 부수어 버리고 책도 불태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성유의 상소는 정구(鄭述)의 말을 인용하여 증거를 삼되, ‘그때 서사원(徐思遠)이란 사람이 이 기록의 사본(寫本)을 만들어 동궁(東宮)에 올리려고 하므로, 정구가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심경질의》의 사본을 올림은 매우 훌륭한 뜻이요 매우 훌륭한 일이다.’고 했고, 또한 ‘그 책은 당초에 선생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금도 미진한 데가 없이 환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경연(經筵)에서 시강(侍講)하게 될 때에 갖추어 진달하여 진강(進講)한다면 좋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김성유는 위아래를 끊어 버리고 그 글 뜻을 반대로 하여 자기의 말의 증거로 삼았으니, 이는 오직 송시열만 모함한 것이 아니라 이황 및 정구까지 아울러 모함한 것입니다. 이덕홍의 영남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이덕홍과 이황이 주고받은 글들을 관(官)에 정고(呈告)하기까지 하여 한 고을의 싸움이 되었으니, 김성유 등이 무망(誣罔)한 실상이 이에서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심경》은 본래 이황이 표장(表章)해 온 것으로서 그가 평소에 공부하는 터전을 삼았던 것인데, 그가 강론한 것을 오늘날 고찰할 데가 없고, 오직 이 《심경질의》한 책이 있을 뿐입니다. 대의(大義)에 있어서는 비록 밝혔지만, 더러는 지루하고 산만하여 소루(疏漏)한 데가 있으니, 실지는 기록하는 사람들의 잘 잘못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산정(刪定)하여 본 뜻이 더욱 밝아지게 하는 것이 어찌 이황을 존대하고 숭상하는 도리에 해롭겠습니까? 이번엔 여러 신하들에게 은사(恩賜)했던 판본(板本)을 이미 도로 반포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이 판본을 하나씩 양남(兩南)의 순영(巡營)중 한 곳에 내리어 각판(刻板)하고 인출(印出)하여 올리고 예람(睿覽)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할 것이며, 이어 이 글이 다시 세상에 행해지도록 하소서.⁴⁸⁾

현재 『艮齋先生續集』 권3에 수록된 『心經質疑』는 지산이 『心經質疑考誤』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어떤 곳은 삭제되고 어떤 곳은 수정 보완되었음이 확인된다.⁴⁹⁾ 『大學童子問答』은 『大學』의 經文과 傳文 中 어려운 구절에 관해서 해설한 다음 經 1장과 傳 8장에 관하여 芝山과 或人, 傳 5장에 관하여는 趙致道가 朱子와 문답한 긴 논의를 추가하고 또 傳 5장에는 誠幾圖, 傳 9장에는 絜矩圖⁵⁰⁾를 삽입하고 있다.

48) 앞의 실록, 제3집, 숙종 20년 10월 18일 조, 『원집』 제39집, 355면.

49) 그 내용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와 같다: 修=修正, 削=削除, 未=未確認, 無=無修正

6. 解說

『易象說』은 『周易』의 각 문장에 나오는 글자나 문구의 뜻을 해설하거나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전부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고오	질의	고오	질의	고오	질의	고오	질의
子朱子	修	楊蘇	修	辨姦論	修	能言眞如鸚鵡	修
障川之主	"	靜中有物	無	劉淳叟	修	溫吞緩	"
贊	"	尋覓	無	度數	修	回互 _上 心機	"
義仁	"	向來 _上 心爲	修	或者	無	仁之 _上 所好	"
懷	削	風	無	百日之錯 _上	修	不要人學寫字	無
形氣之私	修	大事止不聞也	削	非文武自爲戲	削	溲	削
經中	未	程門記錄 _上	"	禮曰	修	話頭	修
亦自是	"	執持	修	其中	削	塵去	"
凝冰焦火	"	不容	削	致堂胡氏	修	神	削
在天	"	曾子曰	修	惡其聲	"	徽菴程氏	修
不可有愆	"	此大可驗	"	知皆擴充	"	深切	削
不同	"	聖賢止心疾	未	佞佞	"	而宜	"
庸言止存誠	削	優裕	削	性情	削	非法不道	無
但他止入來	"	相處	無	視簡	"	哲人	"
雖無厭數	"	寧可逐 _上 是乎	修	憤生不恣意	修	紕	削
無邪閑邪	修	忿恐好憂	"	同安夜聞鐘聲	削	至理	"
只明人理	削	不得其正	削	當知天下 _上	"	曰仁與義	"
必有事焉	"	一有之	"	當而	"	看如何持守也	"
直上	"	機事	"	抵敵	"	不敢自昧	"
霎然	"	凡有 _上 所懼	"	大小大直截	修	日用 _上 工夫處	"
說只恁之說	"	一餉	"	截斷	無	邪怨	"
又訓作理	"	當懼而懼	"	將息病	"	至之	"
家事	修	方	"	至靜之中 _上	削	事斯語	"
不覺喜心	削	某見 _上 配去	"	敬靜爲一	修	聖人	"
強我	"	亦要	"	有放心而不知 _上	削	於外	"
無祇悔	"	要學 _上 兩冊	"	尋向上去	修	其內	"
庶幾	"	慢我	"	腔子	"	出好	"
分桐葉	"	似	"	勸揚時 _上 著書	"	不道	"
七情	無	打酒	"	陳烈	"	無根	修
昊天 _上 遊衍	無	莫在五通	"	頓放處	無	易處	削
譬之	無	解說 _上 正分	"	今公問	修	成之	"
天地之中	削	君子曰	"	兼所愛	"	承斯	"
然此	無	任備	"	倍天通情	"	可行可飛者也	"
中庸解	削	有是	"	物交物則引之	削	大拍頭	無
厥殺教	修	退產	修	不爲苟得	"		
率性之謂道	修	嚮晦宴息	無	由是	"		
就見知處	無	曹操遺令事	修	不受	"		

50) 두 도표는 다음과 같다.

乾卦 爻辭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에 관해서 주자의 〈本義〉에 “大人”은 龍을 지칭하는 데 九二爻이고 “利見大人”의 “見” 字는 점을 치는 자가 보는 것이라고 해설한다⁵¹⁾.

7. 圖解

지산은 전부 8개의 圖表, 즉 曲禮首章圖, 黃道赤道圖, 歷象天氣圖, 中庸章圖, 論語章圖, 心統性情之圖, 易象之圖, 範數之圖를 그렸다. 이들 중 曲禮首章圖는 창작인 것 같으며 易象之圖는 玉齋 胡氏가 邵康節의 冬至子半之說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서 24절기를 분배한 것에 지산이 8괘를 나누어 방위로 삼고 다시 四象과 兩儀를 차례로 배열하여 추가하였으며 範數之圖는 胡氏가 64괘에 절기를 분배한 것을 근거로하여 만든 창작이고 나머지는 그 유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Ⅲ. 芝山 哲學의 基本 立場

지산이 학문 활동을 하던 시기는 우리 나라 성리학의 발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고려말에 晦軒 安珦과 圃隱 鄭夢周를 선구로 도입된 성리학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陽村 權近, 靜庵 趙光祖를 거쳐 晦齋 李彦迪, 花潭 徐敬德을 南冥 曹植, 退溪 李滉에 이르러 집대성되며 花潭의 氣學, 晦齋와 退溪의 理學, 南冥의 義理學으로 학파가 형성된다.

이러한 당시의 사상사적 흐름 속에서 퇴계의 문하에 입문 수학한 지산의 철학적 기본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특색을 지니고 있는 가를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이제 고찰하기로 한다.

지산의 철학적 기본 입장은 화담과 남명 비판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題徐花潭鬼神生死論後〉에서 화담의 ‘氣終不散’이라는 主氣說을 비판하고 〈題南冥曹先生乙卯辭職疏後〉에서는 남명의 ‘上達天理하면 유교와 불교가 다를 바 없다고 한 견해’

誠幾圖		黎矩圖	
誠	誠	地	側
幾	幾	圖	圖
	圖		
善	惡	前	上
幾	幾	左 己 右	前 己 後
		後	下

목판본 10ab쪽, 24a쪽 참조.

51) 『도산급문제현집』, 제3권, 661쪽 참조.

를 잘 못 이라고 하며 〈題南冥關西問答後〉에서는 남명이 회재를 비판한데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회재는 망기당 조한보가 이단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은 남명이 조한보와 같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지산은 회재를 찬양하여 이단을 배척한 그의 공로가 양목을 배척한 맹자의 공로 보다 못 하지 않다고 하고 또 〈퇴계선생행록〉에서는 퇴계를 정자와 안자에 비유된다 고도 한다. 여기서 지산은 불교와 老莊 학을 이단으로 배척하고 主理說을 주장한 회재와 퇴계의 입장을 확고하게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산이 15세 때 우리 나라 성리학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한 계기를 제공한 이퇴계와 기고봉 간의 四端 七情 理發 氣發에 관한 논변이 시작되어 8년간 계속된 뒤 그가 22세 때 종결되었고 26세 때 퇴계가 서거하였다. 지산이 17세 때 퇴계 문하에 입문하였기 때문에 이 논변의 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에 관한 지산의 광범하고 깊이 있는 설명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題聖學十圖說心統性情圖〉에서 주자의 “人稟五行之氣以生”이라는 설명에 근거하여 仁義禮智의 四端에 信을 추가한 仁義禮智信의 五端을 주장한 林隱 程氏의 이론을 수용하고 이것을 金木水火土의 五行과 결부시키면서 四端만을 말하는 程朱의 입장은 인의예지가 각각 하나로만 발하는 專發을 말하는 것이나 信은 이 사단에 다 같이 하나의 端이 될 수 있기 때문에 信端이 없을 수 없다고 한다.

본체론에 있어서 지산은 태극을 一元으로 파악하고 張子가 말하는 天地之性和 氣質之性, 맹자가 말하는 본연지성과 순자, 양자, 한유가 말하는 氣質之性은 未生之前과 已生之後의 관점에 따라 구분되며 원래 두 가지의 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질지성을 잘 회복하면 천지지성, 본연지성이 될 수 있으며 『주역』에서 말하는 道와 器는 形而上下의 차이가 있을 뿐 도는 기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지산의 일원론적 본체관과 理氣 不相離 理氣 不相雜(未生과 已生, 형상하의 구별에 따라)의 사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바로 퇴계의 이기관을 계승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양론에 있어서 敬을 修己治人の 大要로 삼는 점은 퇴계의 사상과 일치하나 持敬 공부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 퇴계는 敬學으로 西山 眞德秀의 『心經附註』를 중시하였고 그 중에서도 持敬의 조목으로 정자의 主一無適, 整齋嚴肅, 謝上蔡의 常惺惺, 尹和靖의 其心收斂 不容一物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종합한 주자의 四個條說을 중시한 반면 지산은 『논어』의 四勿과 『예기』의 九容을 수용한 점이 독특하다.

지산의 出處觀은 은둔지상주의도 아니고 출세지상주의도 아니며 출세할 때는 출세하고 은둔할 때는 은둔하는 時中主義였다. 〈퇴계선생행록〉과 두 번째 〈책문〉에서 지산의 이러한 출처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는 퇴계가 바로 이런 출처관을 실천한 것으로 확신하고 자신도 이 출처관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지산이 崔滉의

부당한 조치로 16년간이나 억울한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한 번도 호소하지 않았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관직을 제수 받아 倡義討賊에 솔선하기도 하였다.

〈질의〉, 〈考誤〉, 〈문답〉, 〈해설〉, 〈圖解〉 등에서는 지산의 학문이 얼마나 깊고 광범하며 치밀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특히 易學에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金堉은 지산의 行狀에서 밝히고 있다.⁵²⁾

맺음말

지산은 탁월한 학문적 자질을 타고났으며 일찍이 퇴계 문하에 입문하여 그 학통을 충실히 계승하였음이 위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산은 퇴계와 회재의 주리사상을 계승하는 데 그치고 그것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지산이 퇴계와 對面 수업을 한 기회가 몇 번밖에 되지 않았으며 또한 젊었을 때 학문적 전통의 불모지인 관서지방으로 유배를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학자들과의 학문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고 오직 책만을 스승과 벗으로 삼은 데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산은 “여러 『經典』에 관한 『주자집주』, 『或問』, 『章圖』 등이 있어서 의리의 치밀함과 訓釋의 자세함이 남김 없으니 반드시 군더더기 말을 하여 집 위에 집을 짓고 상 위에 상을 포갠다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⁵³⁾고 말함으로써 저술에 힘쓰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지산은 철학에 관한 단편적인 글과 質疑, 考誤, 釋解, 考證 등의 글만을 남긴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지산의 철학사상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 지산에 관한 한국 철학계의 연구를 아직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52) 행장, 『도산급문제현집』, 제3권, 615쪽 참조.

53) 같은 곳.